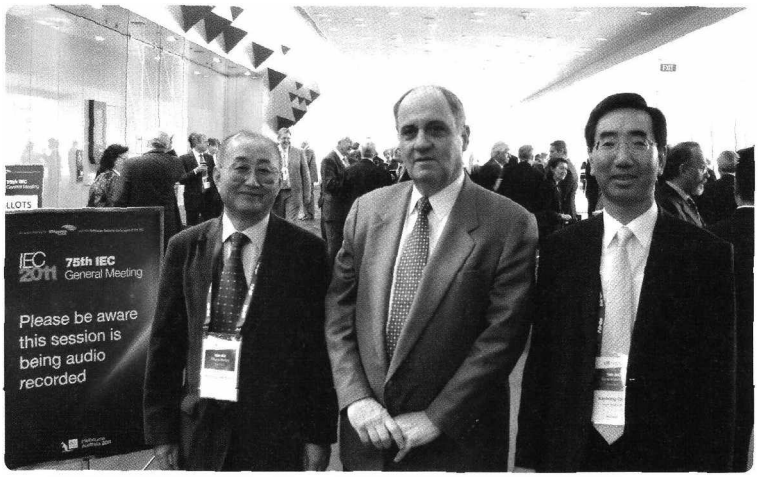
한국, IEC의 CB와 SMB 등 2개 정책이사회 진출 성공

최갑흥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 CB 이사에 선출, 신명재 SMB 위원은 재선



▲ IEC 사무총장(로니 아밋, Mr Ronnie Amit)과 IEC CB, SMB 당선 축하기념 사진

올해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제75차 IEC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2개 정책위원회 이사에 입후보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 최갑흥(前기술표준원장) 부회장은 스웨덴, 네덜란드, 남아공, 브라질, 멕시코 등과 경합하여 CB(Council Board: 이사회) 이사에 선출되었고, 신명재(前기술표준원 부이사관) 위원은 캐나다, 스페인, 핀란드 등과 경합하여 SMB(Standardization Management Board: 표준화관리이사회) 이사 재선에 성공하였다.

IEC의 CB는 IEC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이고, SMB는 기술위원회(TC)의 신설, 폐지, 통합 등의 권한을 가진 핵심위원회이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들 2개 위원회 이사로 재진출함에 따라 우리기술의 국제표준 선점 확대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회의는 총회를 비롯하여 3개의 정책위원회와 전년 대비 하여 약 30% 감소하였지만 기술위원회 (TC/SC) 51개가 열렸으며 65개국에서 1,500여 명이 참가하였다. 우리나라는 최형기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국장을 비롯한 대표단 90여 명이 참석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참가규모 4위였던 158명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이다.

IEC 총회에서는 IEC 전략계획 승인, 임원 선출, 대표단장 포럼, 예산 승인 등을 다루었는데 우리나라 대표단은 총회, 정책위원회, 포럼 등에 참여하여 표준화 정책을 논의하였다. 특히 IEC 국가위원회 간사인 주소령 국제표준과장은 간사 프럼 및 아·태지역 운영위원회에서 한국의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 클라우드 컴퓨팅과 한국이 세계 최초로 제안하여 신설한 인쇄전자 TC 등을 소개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SVB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필요에 따라 3년 임기의 Vice-Chairman을 둘 수 있다는 것과 TC/SC 회의에 2번 연속 불참하고, 기술작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거나 서면으로도 기여를 하지 않으며 TC/SC 투표에 불참하는 경우에 간사국은 이를 사무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CAB(적합성 평가이사회)에서는 전기에너지효율(E3)에 대한 IECEE의 적합성평가 프로그램 착수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51개 기술위원회에 참가한 한국의 전문가들은 광통신, 멀티미디어 분야 등에서 스마트에너지 홈 참조모델, 모바일용 무선 충전기 등 11건에 대한 국제표준을 제안하여 신규 프로젝트로 채택시킴으로써 IT 강국의 면모를 세웠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ISO 총회 때와 마찬가지로 양자 표준화회의를 통한 각 나라별 표준외교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중·일 국장급 협의체, 한·독, 한·미 양자회의, PASC미팅 등을 개최했으며, 이들 국가들과 양자협력 논의를 통해 기술위원회와 정책위원회에서 상호 지지, 표준전문가 교육 등 국제표준화활동에서 공조를 적극 추진해왔다.

이 밖에도 아시안의 협력 추약국가와 개별 접촉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정책위 지지를 유도하였다. 10월 25일에는 태평양지역표준기구(PASC, 25개국)의 미팅에도 참여하여 적극적 표준외교를 추진하였으며, IEC의 중앙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하여 IEC의 글로벌 비전 인터뷰 계획을 협의하고 우리나라의 MSB(Marketing Strategy Board) 참여 시기도 협의하였다.

11월의 행사 캘린더

일 자	행사내용	참석대상	장 소	시 간
11월 6일(일) ~ 13일(일)	제3차 WTO TBT위원회	주요 참가국 대표와 국내 대표자 5명	스위스 제네바	– 양자협의: 7일(월)~11일(금) – 규제협력 워크숍: 8일(화)~9일(수) – 본 회의: 10일(목)~11일(금)
11월 8일(화)	NEP 인증기업 발굴회	NEP 인증 관련 기업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	14:00~17:00
11월 11일(금)	제8회 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기술표준원장,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장, 학계, 업계 관계자 약 300명	기술표준원 중강당	16:00
11월 16일(수)	2011년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	공공기관, 인증기업과 수상자 등 약 400명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	–
11월 23일(수)	한국정밀산업기술대회	정부관계자와 수상자 등 500명	COEX 4층 그랜드컨퍼런스룸	10:40~12:00

미국과의 양자회의를 통해서는 미국(ANSI)과 표준 및 적합성평가활동에 대한 우선순위 목록, 한국의 FTA, EC TC/SC별 대응위원회 연락처 교환 등의 의제가 논의되었다. 또한 유해물질 사용제한, 폐전자제품의 회수, 위조품을 줄이기 위한 관련 활동과 IEEE, ASTM 등과의 사실상 표준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정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협의하였다. 독일(DKE)과의 양자회의에선 전기차, 스마트 그리드, 보안표준에 대해 논의하고 보안표준화 협력방안을 협의하였다.

무엇보다 양자 간 및 다자 간 회의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것이 인쇄전자 TC 설립이었으며 TC 신설을 주도한 우리나라에 대해 많은 나라로부터 큰 관심과 부러움의 시선을 받았다. 예년과 달리 0 번 IEC 총회 기간 중에는 Glocal Sponsorship에 참여한 LS산전의 홍보물이 배포되어 한국기업들의 표준화에 대한 관심과 국제적 위상을 높여주었다.

제3차 WTO TBT위원회 정례회의 참가와 양자협의

11월 6일~1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의제별 논의에 대응, 양자협의와 규제협력 워크숍도 개최

기술표준원은 11월 6일~1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3차 WTO TBT위원회 정례회의에 정부대표로 참가해 의제별 논의에 대응하고 우리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다. 특히 멕시코 에너지 라벨링과 미국 리튬이온전지 운송강화규제, 중국 전자정보제품오염통제 관리방법 등에 대해 우리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주요 참가국들과는 양자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며 본 회의에 앞서 규제협력 워크숍에도 참가하게 된다.